창사 67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치료 잘하는 병원
친절한 병원
청연한방병원

제9069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4 SINCE 1991 kjdaily.com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음력 10월 23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2명 사망·2명 매몰

2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중 '와르르'
매몰자 중 2명 위치 파악조차 안돼
지지대 미설치 등 논란…당국 조사
올 6월에도 현장서 추락 사고 발생

구조 작업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됐다. 작업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소방 당국은 남은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2명 사망…매몰 2명 위치 확인 중

11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던 2층 옥상에서 시작돼 지상의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까지 무너뜨렸다. 이 사고로 전체 작업자 90여명 중 4명이 잔해에 깔렸다.

오후 2시4분께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구조에 착수했고 오후 2시52분께 심정지 상태의 40대 작업자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이후 오후 8시13분께 매몰자 1명을 구조했으나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매몰 위치 확인을 병행하는 중이지만 얽히고설킨 콘크리트 잔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명 모두 내국인이며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 "사고 현장 지지대 없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당시 옥상 현장에선 레미콘(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는데 지지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동바리'라고 불리는 지지대는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구조물이 굳을 때까지 무게를 안전하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거나 설계상 압축 강도를 일정 부분 충족할 때까지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브리핑에 참여한 공사 현장 관계자는 "지지대 없는 특허 공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특허 공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진 않아 논란이 예상되며 적법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광주시는 사고 직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오후 2시40분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회의에는 강 시장,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대책본부는 신속한 구조를 위한 크레인 등 추가 장비 투입에 협력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위반조사…경찰도 수사 착수

앞서 지난 6월13일에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약 8m 높이에서 추락한 A(60대)씨는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올해 9월 사망했다.

A씨의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붕괴 사고까지 함께 조사하게 됐다.

노동 당국과 별도로 광주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불법 재하도급 여부, 공법 상 문제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착수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516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지상 2층의 연면적 1만1천㎥ 규모로 건립된다. 서고, 유아·어린이·일반·멀티미디어 자료 이용실, 문화·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2022년 9월 착공했으나 올해 6월 시공사 중 한 곳인 홍진건설의 모기업(영무토건)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공동 시공을 맡았던 구일종합건설이 홍진건설의 지분을 인수받아 지난 9월 공사를 재개했고 준공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밀렸다.

이번 붕괴 사고 수습과 조사 등으로 인해 광주대표도서관 준공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재영·이연상 기자

전남 '재생에너지 시대' 서막 올랐다

96㎿ 규모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SK·덴마크 CIP 총 8천700억원 투자
민간 주도 국내 최초 상업운전 성공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 상업운전에 들어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이 11일 신안에서 열려 '전남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이날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 토마스 위베 폴슨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정부·지자체·유관기관·발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기업인 CIP가 8천7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96㎿ 규모 발전단지로 10㎿급 터빈 10대가 설치됐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8년 만인 올해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은 신안 집적화단지에서 각각 399㎿ 규모의 전남해상풍력 2단지와 3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상업운전에 성공한 사례다.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군(軍) 레이다 차폐 등 군 작전성 해소와 인허가 절차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량 35.6GW 중 22.2GW(62.4%)를 보유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중심지다. 올해 4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인 3.2GW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어 10월에는 신안집적화단지 0.5GW 확대와 3.6GW 규모의 진도 집적화단지 지정도 신청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2035년까지 전남 동·서부권에 30GW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자재 생산부터 설치·운송·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그룹이 해남 화원산단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 투자 협약을 하는 등 민간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 분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민간 주도 최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며 겪었을 여러 규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업운전을 성공한 발전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신안에서 추진 중인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GGM 2교대 전환 일자리 1천개 늘려야" 4면
동인선생 역경강좌-제39강 '수지비' 15면
'제한된 예산'…실망하는 팬심 요동 16면

李대통령, 전재수 면직안 재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내각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관련기사 4면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귀국 직후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면직안 재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 표명 배경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